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12월 발행 (제 56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100엔 (배송료 포함 200엔)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 ◎권두 메시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예레미야
- ◎간증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 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 E3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by 예레미야

요한복음 9: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 <예수를 착각 한 바리새인들>

오늘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누구나 알기 쉬운 형태로 온 것보다는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무늬만 위선적인 사람들이 심판되어 아차하는 일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시작 부분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선천적 맹인인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달라고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심판은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이는 사람이 장님이 되기 때문에"임을 단어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청년이 눈이 보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의 육체의 눈이 보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분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28 저희가 욱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9: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9: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9: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9: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9: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9: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타고난 맹인이었던 그는 바리새인들이 볼 수 없었던 분을 보고 예수님 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린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장님이 되기 때문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잘 보이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바리새인들은 훌륭하게 예수님을 보게 실패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 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24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는 죄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같은 예수에 관하여 이런 차이가 태어나 버린 것일까? 한 타고난 맹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한편의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왜 같은 예수에 대해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자가 하나님을 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맹인이었던 청년은 그

마음이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만, 그러나 외부 것이고 그 마음은 거룩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심판이란?>

그런데 주님은 처음 말씀에 "내가 심판 하시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이 장님의 성경 구절을 지켜본, 분명히 주님의 첫 강림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심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진정한 행보와 마음이 주님의 오심에 의해 밝혀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의 첫 강림은 형태만 경건한 것이며, 그러나 그 열매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실수 같은 모양, 다른 말로와 덧붙이, 수수께끼 같은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등 외부는 희게 칠해진 무덤처럼 깨끗하고도 그 안쪽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사람들 마음 부정한 것은 사람들은 모두 이 수수께끼에 걸린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메시아가 어떤 땅에서 태어나 성서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원수가 나사렛 출신 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심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덧붙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실은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여행지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부리고 위선자를 일망 타진하는 같은 덧붙이 문제 나사렛 예수라는 난제를 그들에게 제공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은 많은 위선자를 가리지 사막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들은 그 덧붙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례는 그 나다나엘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정한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1:46**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1:47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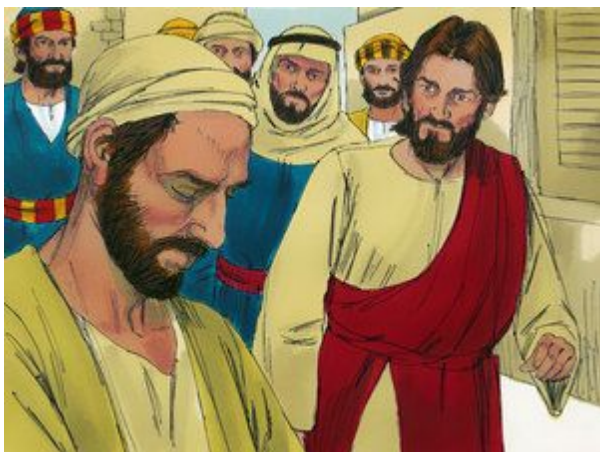
1:48 나dana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1:49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바리새인처럼 나사렛 출신의 예수 등 상대하지 않았다 나dana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 이야기 속에서 이 분 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도 마음이 맑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예수님의 첫 강림은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

이처럼 첫 강림 예수는 심판으로 오신 이른바 갈고리 문제와 같은 형태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것 같은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첫 강림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첫 강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일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형태뿐만 행보를 하고 그 열매, 희게 칠해진 무덤 같은 행보 위선자의 행보를 해 기독교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입니다. 주님의 첫 강림 관해서 복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누구나 이 분 이야말로 성경에 예언 된 메시아이면 깔끔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지 않았다 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부러 많은 전문가가 실수 형태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입니다.



### 타고난 장님은 예수를 본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의도가 느껴지는 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때보다는 그 강림이 위선자와 모양 만 경건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의 때와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 순경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감색 제복을 입고 머리에 경찰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곤봉과 권총을 내려 경찰의 하얀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을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순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항상 경찰의 사람들은 그런 알기 쉬운 모습으로 걷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에서 그 근처의 아저씨와 변함없는 같은 풍채에서 전철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차 소매치기가 사람의 포켓 지갑을 취하려고 하면 재 빠르게 체포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의 형사는 상대를 잡기 위해 그것에 모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알기 쉬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첫 강림도 바로 이 사복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와 동일합니다. 첫 강림의 목적이 위선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므로 누구나 바로 그것으로 알 모양으로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주님의 재림도 심판을 위해 온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첫 강림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임박했을 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어떤가? 라는 질문입니다. 재림 주님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재림에 관해서도 주님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지의 방법으로 오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오심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닷 문제와 같은 형태로 올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말의 봉인은 심판을 위해 사용된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다. 그러나 막상 종말 일 재림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비밀로 봉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종말에 관한 모든 기사가 모두 비밀이며, 7 개의 것 단단한 것으로 봉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다니엘서에 기록 된대로 의인 악을 행하는 자를 구분하고, 심판 때문입니다.

**다니엘 11: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1:10 ○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에는 종말의 말씀이 인으로 봉한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나쁜 사람 회사는 악을 행 하나도 깨닫는 자가 없다."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말씀을 봉인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나쁜 놈들이 한 명도 깨닫는 것이 없다"때문이다 수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이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 문에 7 개나 열쇠 나 자물쇠를 걸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열쇠라면 흔히 있는 일이지만, 7 개는 이상한 숫자입니다. 이 키의 수에 따라 그 집의 주인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모르는 사람 하물며 강도 나 악당, 불량 등으로는 결코 자신의 집에 들어와 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많은 열쇠로 집을 지킨다"와 같은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종말의 말씀에 관하여 봉인을 하고 종말에 이르러서는 7 개의 물건으로 봉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의지는 분명하다 "악인은 결코 봉인을 열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전 날, 주님의 첫 오순절은 위선적 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며 그 날 제대로 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같은 일을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이루어 지도록 나에게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의 봉인 된 예언을 통해 이루어 지도록 나에게 보인다. 즉 의인 성령의 지혜를 준 사람들은 종말의 봉인을 풀고 종말의 날에 걸어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그러나 한편, 모양은 경건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간주 된 사람들에게 봉인은 열리지 않고 결과 멸망을 잡는 이런 생각됩니다.

## <봉인은 위선적 인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동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교회, 특히 종말의 봉인에 관해서 볼 때 이것은 성취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사려 깊은 사람들이 7 개의 봉인을 모두 열고 마친 시대 있을까요?

내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7 개의 봉인 중 하나쯤 열린 않은 것 같지만 어떨까요?

지금의 교회의 상식이 되고 있다 종말 교리 예 환난 전에 휴거설, 2 단계 휴거 설 등은 실례입니다

다 만 장님의 뚱처럼 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제 3 성전이 건립 느니 EU가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봉인이 열리지 있을까요? 그 대답은 모두의 텍스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전 날, 자신 이야말로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종교 전문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장님에 불과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 취급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지금의 성경과 교회의 전문가이어야 할 사람들이 종말 교리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가제네타를 잡아 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님이며, 종말의 말씀이 그들의 심판을 위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 이상 -



7 개의 봉인을 열다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 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 E3

-----  
-----  
최근 10 월의 토요일 모임에서 여호수아에서 배우고을 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참으시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밀줄의 말에 주목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드릴한다면, 예레미야 목사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어떤 말을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곳은 어떤 곳 일까? 라고 하면, 그 전부터 읽고 압니다만 아간의 죄 에 대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21 절은 아간이 말한 것입니다만, 이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 를 아간이 취한 위해 다음 이스라엘은 적에게 정복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말씀이 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위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는 21 절에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인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는 일본어라면 별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만, KJV 번역에서는 "goodly Babylonish garment"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바빌론의 아름다운 옷"입니다. 또한 "바빌론"과 "옷"는 비유 의미가 있습니다. "바빌론"은 렘넌트 교회에서는 "미국"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옷"는 "교회의 제도"라든가 '가르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누아루의 아름다운 외투"는 "미국 유래의 훌륭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하늘로 꿈힌다는 "환난 전에 휴거 설"입니다. 이 교리는 미국에서 온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일단 이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에 따르면 그것은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절에 "도둑질" "속이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환난 전에 휴거 설'은 예수님이 말한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었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끔찍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의 말씀을 곡해하고 또 다른 한 개로 한 것, 즉 말씀을 훔치고 속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이 "장막(교회)"에있을 때 12 절에서 "이스라엘은 적 앞에 설 수 없으며, 적에게 등을 보인 것이다."라고 대로 적을 앞에 설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어 "그들이 진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서 그 바친 물건을 쓸어 버리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이 그들을 가지고 있다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라고 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있어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바친 물건을 쓸어 버리지 않는다면"라고 합니다 같이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을 제외하지 않는 한 사탄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빌론, 즉 미국 유래의 교리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를 발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환난 전에 휴거설'은 그저 일례이며, 그 밖에도 미국 유래의 거짓말, 거짓 가르침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인식 거리에서도 하나씩 제외해 나가기로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저주받은 것이된다"라고 "적의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도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이 있으시면 즉시 제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쓸어 버리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뒤집으면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를 쓸어 간다면 하나님은 함께 있어주세요 라는 것이며, 적을 상대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진멸의 것 (KJV 번역 : 저주받은 것)"에 대해 짐작이 있으시면 꼭 실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는 승리자가 나라를 상속받지 아니하나 영생을 얻기에 관하여 말해지고 있지만, "연전연패" 즉 적에게 "패배 한 벌"이라는 때 하마터면 영생을 떨어뜨리거나 나라에 들어 해쳐 큰일 할 수 있으므로 부디 조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